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 중점사항에 대한 토론

김 차 진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경자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주제발표 원고를 잘 읽었습니다. 현재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탓인지 이전의 원고들에 비해 매우 쉽고 간결하게 개정 방향을 정리해주셨고, 읽기에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교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유독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까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하도록 하면서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로 삽입되다보니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창체로 확보한 시·도에서는 사실상 창체가 위축되게 마련이었습니다. 반대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순증하여 편성한 시도는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더니 바보가 되고 말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관없는 정책은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교과의 요구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총론에다 명기를 해놓으니 창체는 창체대로 그 본래 시수를 빼앗겨버리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창체 시수를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범교과 학습 주제까지도 창체에서 소화하라고 하지 말고 아예 창체 시수를 교육부가 원하는 과목에 넘겨주고 창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불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과정평가는 가급적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교육내용-교수·학습-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조치는 교과 수업을 학생 중심 활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에 과정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언급하기가 어렵다면 시도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에서라도 과정 평가를 일방적인 숙제로만 학생에게 부과하지 말고 수업시간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말하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썬하기 과정

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과정평가를 실시하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고 사교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고,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교과, 창체 시수 활용, 창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모델 내놔야

자유학기 운영 방침이 총론에 들어오는 순간 교과 및 창체 시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은 기존의 창체 영역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중에서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에는 교사가 학생이 어느 활동을 하든지 학생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형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밀려드는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보니 범교과 학습 주제를 39개까지 늘려왔는데 10개 이하로 줄인다니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범교과학습 주제로 남게 된 10가지는 여전히 교과 및 창체로 보서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10가지 주제도 교과에서 녹여내도록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창체 시수를 갉아먹게 될 것임을 주목하게 됩니다.

홍원표 교수님 원고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으면서 고등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같이 살펴봐야 할 문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로 과도하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영역 총 단위수가 교과 180 단위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 한국사를 포함하여 90단위를 넘지 못하도록 장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어 교과의 시수를 줄일 것이 너무도 뻔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바에는 기존과 같이 국어, 수학, 영어 시수를 합한 시수가 90단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한국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교 교육과정 운영 목적이 수능 준비인지, 학생 성장 추구인지 정립 필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선택과목을 편성하는 기준을 대학입시와 연계시키는 방법이 교육과정 총론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수도권 유명대학이 학생의 총점을 기준으로 출세우면서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가는 압제 같은 방법은 지양하고,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전공 관련 과목을 미리 공지하고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가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성장과 장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위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장치를 해놓으면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고등학생들도 잃어버린 3년이 되지 않고 자기 장래 꿈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인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생 선택 교육과정인지 성격을 분명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꼴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토록 강조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진로에 기반을 둔 선택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과도기 상황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이 되는 10년 후에는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본인이 장래에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조차 중학교 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배우지 못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진로에 따른 전공 적합성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고 고등학교에 들어오다 보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없이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 위주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고 나면 중학교에서 이수하는 직업 진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인식하게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 전공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업진로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선택 과목에 들어있는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가 특성화고 등에서 운영하라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바 있는 기본-일반-심화 과목의 “기본과목”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우수학생들을 위한 심화과목은 개설해줘도, 기본과목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안 배우는 낮은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한다며 창피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교사 수급 문제를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습 성취 수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선택 과목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장될까 싶어 우려가 되니, 이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토론을 마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